

### ‘SNS 막말’ 파문 신동수 방출 게시물 동조한 3명은 중징계

삼성 징계위 개최... “SNS·윤리 교육 강화할 것”



신동수

삼성 라이온즈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내야수 신동수(19)를 방출했다. 삼성은 7일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SNS 내용 유출로 물의를 빚은 신동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물의를 빚은 SNS 게시물 내용의 심각성을 감안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단은 해당 내용을 파악한 뒤 사실 확인을 거쳐 KBO(한국야구위원회)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전달했다.

사건은 4일 벌어졌다. 각종 야구 커뮤니티에는 신동수가 그동안 자신의 비공개 SNS 계정에 올린 글들이 공개됐다. 소속팀 지도자는 물론 선배, 경기 감독관, 심판 등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장애인을 비하하고, 성희롱이 의심될 만한 내용까지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특히 동대구역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의 연고지 대구시를 비하하는 글까지 올렸다. 이로 인해 KBO와 구단이 선수 윤리 교육에 소홀했다는 비난도 빚발쳤다.

삼성은 신동수의 글에 동조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던 선수 3명에도 중징계를 내렸다. 구단 내규에 따라 신인 투수 황동제는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 징계를 받았다. 신인 내야수 김경민은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40시간, 2년차 내야수 양우현은 벌금 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신동수의 글에 동조하는 듯한 댓글을 작성한 타 구단 선수들 2명도 제재를 받았다. 한화 이글스 구단은 소속팀 투수 남지민에게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고, 두산 구단은 투수 최종인에게 강력하게 주의를 줬다. 두산 관계자는 “재발 방지 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선수 SNS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 기존 선수단을 대상으로 SNS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삼성 흥준학 단장은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선수들이 봉사하면서 세상의 밝은 면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남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스무살에 웨딩마치’...2021년이 더 기대되는 롯데 서준원

# “속도 위반요? 제가 결혼하자고 졸랐죠”

6살 연상 트레이너와 12일 결혼  
함께라면 야구에만 집중 자신감  
잔부상도 없던것도 예비신부 덕  
체중 감량과 좌타자 극복이 목표



롯데 마운드의 현재이자 미래인 서준원(왼쪽)이 만 20세에 몸집이 된다. 책임감으로 톨볼 뚝친 그는 남다른 2011시즌 각오를 밝혔다. 서준원과 예비신부의 웨딩사진. 사진제공 | 롯데 자이언츠

고졸신인 입단 2년차 투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돈다는 자체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31경기(20선발)에서 7승 6패, 평균자책점(ERA) 5.18의 성적이 만 족스럽지 않은 것도 그만큼 기대치가 크기 때문이다. 서준원(20·롯데 자이언츠)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동기부여가 가득한 올 겨울, 서준원은 한걸음 더 도약하는 자신을 그리고 있다.

#### ●손아섭 기대=롯데 팬 기대, 부응 다짐

2019년 신인드래프트 1차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서준원은 데뷔 첫해인 지난해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33경기(16선발)에서 4승11패, ERA 5.47을 기록했다. 올해는 개막 로테이션 합류에 성공했고 시즌 막판 불펜으로 전환했지만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진 못했다. 7일 스포츠동아와 연락이 닿은 서준원은 “성과와 한계 모두를 확인한 시즌이었다”라고 돌아봤다.

서준원이 꼽은 반등 조건은 좌타자 극복이다. 올 시즌 우타자 상대 피OPS(출루율+장타율)은 0.656으로 준수했지만, 좌타자 앞에선 0.936으로 기록이 나빠졌다. 상대타석은 비슷했지만 허용한 장타 34개 중 23개(67.6%)가 좌타자에 집중됐다. 좌타자가 많은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상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150km에 달하는 속구와 사이드암의 위력은 확인했지만 뚜렷한 속제도 있던 셈. 서준원은 “구속이 견재한 건 다행이지만 내 투구가 단조롭다는 점을 깨달았다. 사실 우타자 바깥쪽과 좌타자 뒀쪽이 같은 코

스다. 하지만 좌타자 상대로 유독 어려웠으니, 좌타자들이 바깥쪽만 노리고 들어왔다면, 좌타자들이 바깥쪽만 노리고 들어왔다면, 체인지업과 적극적 뎀쪽 승부를 보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준원은 올 시즌 도중 존경하는 선배이자 형인 손아섭(32·롯데)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손아섭은 “2018년 청소년대표팀 시절 네 투구를 보고 무조건 13~15승은 하겠다고 느꼈다. 아직 그 공

이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관심을 받았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기대. 지금의 서준원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서준원은 “(손아섭 선배를 비롯해 팬들이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내가 부족했다”며 “입단 당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겠다”고 강조했다.

1차 목표는 체중감량이다. 올 시즌 유

독 체중이 불었고, 선배들과 팬들 모두 이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무릎에 당장 이상은 없지만 미래를 보고 독한 체중감량 중이다. 이미 어느 정도 살이 빠졌지만, 올 시즌 대비 10~15kg 정도는 털어내는 것이 목표다.

#### ●피망세, 더 성숙해지는 원동력

올 겨울 또 하나의 확실한 동기부여는 ‘가장 책임감’이다. 서준원은 2년간 교제한 6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결혼한다. 만 20세임을 감안하면 분명히 이른 선택이다. ‘속도위반’ 소문이 났지만 서준원은 “그 애길 들었지만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예비신부는 부산시체육회 소속 트레이너다. 센터에서 운동하던 중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졸랐는데, 오히려 예비신부가 신중하게 ‘넌 아직 어리다. 좀 더 놀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연애를 할수록 ‘정신 차리고 야구에만 몰입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잔부상이 없던 것도 예비신부의 도움이 컸다. 앞으로 힘든 일이 정말 많겠지만 서로 의지해 우리 둘이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한창 놀기 좋아할 만 20세, 서준원은 한 사람의 남편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인간 서준원도, 야구선수 서준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하다.

서준원은 “팬들이 2년간 많이 실망하셨다는 걸 알고 있다. 비판을 보내시는 것도 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반성하면서 “몸도 잘 만들고 있고, 동기부여도 가득하다. 2021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안겨드린 실망이 몇 배 이상의 기쁨과 응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익래 기자

## 日 요미우리행 반박한 로하스...공개 구애한 염태영 수원시장

### 로하스 다음 시즌 행선지 관심집중

KBO리그 최우승선수(MVP)의 내년 행선지에 한국은 물론 일본의 관심도 뜨겁다. 일본 언론에서 멜 로하스 주니어(30·KT 위즈)의 일본프로야구(NPB) 요미우리 자이언츠행이 임박했다고 보도하자 선수가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사를 반박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러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댓글로 적극 구애를 펼쳤기도 했다.

일본 ‘데일리스포츠’는 7일 “로하스가 요

미우리와 입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2017년 대체선수로 KT 유니폼을 입은 뒤 올해 142경기에서 타율 0.349, 47홈런, 135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97을 기록한 로하스의 이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데일리스포츠’는 요미우리의 현 상황에서 로하스가 꼭 필요한 퍼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올해 2연속시즌 센트럴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재팬시리즈에서 소프트뱅크 호크스에 스윙패를 당했다. 2012년 이후 8번째 재팬시리즈 제패에 실패했기에 전력 보강에 목마르다.

하지만 로하스는 일본에서 보도가 나온 직후 자신의 SNS에 “이는 가짜뉴스다. 아직 2021년에서 어디서 뭘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T는 역대 외국인선수 최고규모의 재계약 조건을 로하스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신 타이거즈, 요미우리 등 NPB 구단들이 로하스에 적극 구애를 펼치고 있다. 아직 메이저리그 도전을 포기하지 않은 로하스는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로하스의 SNS에 반박글이 올라오자 염시장은 댓글을 달았다. 염시장은 “아직 마



로하스

염태영 수원시장

음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면 내년에도 수원 시민들과 함께하면 안 될까요? 로하스와 함께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꿈꾼다”고 했다. 지자체장이 외국인선수에게 구애를 하는 장면 자체가 이색적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경기 결과

#### 프로배구 (7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흥국생명	11	10	1	29	1028	925	1패
2	GS칼텍스	11	7	4	20	1039	975	5승
3	IBK기업은행	11	5	6	16	930	956	4패
4	인삼공사	11	4	7	14	894	933	1승
5	도로공사	10	3	7	9	821	860	2승
6	현대건설	10	3	7	8	776	839	1패

#### ●부분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리츠	GS칼텍스	354	①	한승이	인삼공사	0.78
②	디우프	인삼공사	334	②	한수지	GS칼텍스	0.72
③	라자레바	IBK기업은행	305	③	정지윤	현대건설	0.69
④	김연경	흥국생명	277	④	정대영	도로공사	0.68
⑤	켈시	도로공사	246	⑤	김세영	흥국생명	0.68

####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KB손해보험	13	10	3	28	1239	1171	1승
2	대한항공	13	9	4	25	1225	1151	2승
3	OK금융그룹	12	9	3	24	1174	1129	1패
4	한국전력	13	5	8	17	1213	1219	1패
5	우리카드	12	5	7	16	1032	1052	2승
6	현대캐피탈	13	4	9	11	1105	1186	2패
7	삼성화재	12	2	10	11	1081	1161	5패

#### ●부분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케이타	KB손해보험	499	①	진상현	OK금융그룹	0.79
②	라셀	한국전력	332	②	김용정	KB손해보험	0.78
③	다우디	현대캐피탈	330	③	박상하	삼성화재	0.75
④	바르텍	삼성화재	324	④	하현용	우리카드	0.70
⑤	정지석	대한항공	270	⑤	신영석	한국전력	0.65

#### 프로골프 (7일)

#### ●PGA TOP10

마이코바 클래식 최종라운드				
순위	선수	점수	차이	
①	호블런(노르웨이)	-20	② 와이즈(미국)	-19
③	호기(미국)	-17	④ 잉글리시(미국)	-16
⑤	클로버(미국)	-16	⑥ 토드(미국)	-15
⑦	강성훈(한국)	-8	⑧ 최경주(한국)	-5

#### ●LPGA TOP10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 최종라운드				
순위	선수	점수	차이	
①	스탠퍼드(미국)	-7	② 유소연(한국)	-5
③	노예림(미국)	-5	④ 고진영(한국)	-4
⑤	헬(잉글랜드)	-3	⑥ 위버(미국)	-2
⑦	박성현(한국)	+5	⑧ 허미정(한국)	+6

#### 아마추어 경기결과 (7일)

대회	결과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SK호크스 아래나)	
●여자부 = 경남개발공사 25-24 서울시청	

#### 해외축구 (7일)

####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득점	선수	팀	득점
1 토트넘	11	24	7	1	3	① 칼버트-클라인	애버턴	11	11
2 리버풀	11	24	7	1	3	② 손흥민	토트넘	10	10
3 첼시	11	22	6	1	4	③ 버디	레스터시티	9	9
4 레스터시티	11	21	7	4	0	④ 살라	리버풀	9	9
5 맨체스터Utd.	10	19	6	3	1	⑤ 뱅쇼	리즈	8	8
6 맨체스터시티	10	18	5	2	3	⑥ 케인	토트넘	8	8
7 웨스트햄	11	17	5	4	2	⑦ 윌슨	뉴캐슬	7	7
8 사우샘프턴	10	17	5	3	2	⑧ 자하	크리스탈팰리스	7	7
9 애버턴	11	17	5	4	2	⑨ 페르난데스	맨체스터Utd.	7	7
10 울버햄튼	11	17	5	4	2	⑩ 왓킨스	애스턴빌라	6	6
11 크리스탈팰리스	11	16	5	5	1	⑪ 글리쉬	맨체스터Utd.	5	5
12 애스턴빌라	9	15	4	4	1	⑫ 윌스	사우샘프턴	5	5
13 뉴캐슬	10	14	4	4	2	⑬ 뉴캐슬	리버풀	5	5
14 리즈	11	14	4	5	2	⑭ 마넬	리버풀	4	4
15 아스널	11	13	4	6	1	⑮ 마레즈	맨체스터시티	4	4
16 브라이튼	10	10	2	4	4	⑯ 모메	브라이튼	4	4
17 풀럼	11	7	2	8	1	⑰ 베르너	첼시	4	4
18 번리	10	6	1	6	3	⑱ 보켈	웨스트햄	4	4
19 웨스트브롬위치	11	6	1	7	3	⑳ 워드	프라우즈	4	4
20 셰필드Utd.	11	1	0	10	1	㉑ 주마	첼시	4	4

####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리버풀 4 - 0 울버햄튼	레스터시티 2 - 1 셰필드Utd.
토트넘 2 - 0 아스널	크리스탈팰리스 5 - 1 웨스트브롬위치

####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레버쿠젠 3 - 0 샤흐04	슈투트가르트 2 - 1 브레멘
-----------------	------------------

#### 경기 예고

#### 남자프로농구 (8일)

●2020-2021 현대모비스 KBL		
팀	결과	결과
SK	<잠실학생>	인삼공사

#### 프로배구 (8일)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팀	결과	결과
도로공사	<김천실내>	현대건설

####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 <장충체육관>			KB손해보험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2.09(수) 05:00	스타드렌 vs 세비아	로아종파크		
2	12.09(수) 05:00	바르셀로 vs 유벤투스	칼트루		
3	12.09(수) 05:00	라이프시 vs 맨체스U	레드버라이어티프치히		

#### 오늘의 토트 (8일)

#### ●축구토토 스페셜 87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2.09(수) 05:00	스타드렌 vs 세비아	로아종파크
2	12.09(수) 05:00	바르셀로 vs 유벤투스	칼트루
3	12.09(수) 05:00	라이프시 vs 맨체스U	레드버라이어티프치히